발행처 : 여수환경운동연합
발행인 : 정회선, 정한수, 진옥
발행일 : 2014년 2월 5일

물·맑은·동리

통권 제196호
2014년 2월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 Korea 여수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
(555-802) 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2층) | 전화 (061) 682-0610 | 팩스 (061) 691-0680 | E-mail:yosu@kfem.or.kr | 홈페이지:http://yosu.kfem.or.kr

1월 활동사항

1. 2	감사 집행위
1. 3.9.16.23	촛불집회
1. 6	소식지발송
1. 11	정기 총회
1. 14	녹색평론 독자모임
1. 20	시국회의
	여수 · 순천 단체 봉두마을 현장조사
1. 22	자연의 벗 모임
1. 23	화양대책위 집행위원회
	연대회의 신년인사회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일인시위 -경찰서 앞
1. 24	봉두마을 간담회
1. 25	밀양2차 희망버스
1. 26	자연의 벗 - 고흥 마복산
1. 27	회원만남 - 자문위원

2월 활동계획

2. 3	열린합주단 정기연주회
2. 6	집행위원회
2. 7	봉두마을 주민대책위 구성논의
2. 15	햇빛발전협동조합 제 2차 총회

12월 회비 납부해 주신 분들

(주)에코필	기영훈	김미진	김영호	김종태	김형역	문우열	박연정	방윤희	송영미	양진서	이광식	이종균	전정희	정호열	진미향	하용식
강경수	김가현	김민철	김오곤	김종헌	김혜민	문은태	박영석	배선주	송은채	엄익상	이광열	이종섭	전철희	정홍배	진수길	하임순
강관종	김경만	김병주	김옥자	김종형	김혜옥	문재식	박용하	배재만	송재욱	오경희	이광운	이 준	전치수	정회선	차동호	하혜순
강대영	김경옥	김병철	김용기	김종호	김혜정	문재화	박유하	배태진	송주석	오동진	이남주	이창록	전태식	정흥호	차중현	한강석
강명호	김경완	김병한	김용하	김종훈	김혜진	문정희	박은현	백부광	송지훈	오미영	이대수	이춘호	전형성	정희택	채영숙	한미숙
강성군	김경화	김봉석	김우인	김준태	김호권	문태석	박인순	백선희	송진근	오승택	이동길	이현종	정광석	제정화	채옥희	한상찬
강성언	김권기	김봉주	김우현	김중태	김홍렬	문희찬	박인준	백철현	신남구	오창준	이득섭	이현주	정권희	조경래	천상국	한연옥
강성원	김금주	김상수	김유미	김지란	김홍순	박가영	박점수	백형주	신미경	옥은희	이득섭	이현준	정길호	조규만	천현식	한원석
강성진	김기태	김상우	김유빈	김지순	김회종	박경근	박정숙	사공춘	신상훈	우미숙	이문식	이 훈	정대훈	조규빈	최규만,하미영	한정우
강신애	김남규	김상욱	김유신	김지연	김희경	박경호	박정순	서민용	신영선	우상수	이미선	임석희	정동진	조달준	최동훈	한준협
강용기	김남의	김상일	김유진	김진선	김희수	박국제	박정열	서성기	신우철	우창정	이민종	임순악	정득모	조대성	최병두	한창진
강윤성	김남중	김선종	김유화	김진숙	김희철	박근호	박정임	서성전	신우철	원유준	이병철	임인숙	정병필	조성호	최병수	한해광
강의수	김대성	김성곤	김윤미	김진영	나선주	박기찬	박정철	서예재	신창윤	유경선	이상율	임정화	정비취	조예린	최병은	한효은
강재헌	김대우	김성곤	김윤재	김진화	나성현	박남옥	박종수	서완석	신철호	유경숙	이상하	임종악	정선국	조예원	최성남	허형환
강혜경	김대일	김성국	김윤홍	김진희	나승철	박대오	박종숙	서완석	신향진	유광수	이상훈	임 진	정설희	조천래	최성준	홍상원
강흥순	김대천	김성률	김은옥	김천미	나화주	박명렬	박종준	서종원	신현제	유규봉	이상훈	임치택	정성권	조현서	최영태	홍석봉
고병문	김대호	김성언	김은희	김천수	남경원	박명숙	박중현	서중규	신현출	유기영	이선행	임호상	정숙희	조현준	최오식	홍순갑
고선호	김대희	김성열	김 의	김천종	남선희	박병재	박지영	서현식	심경섭	유명희	이수헌	장갑종	정영민	조혜영	최용운	홍채욱
고성환	김덕이	김성진	김이용	김태성	남정완	박병조	박지형	서현아	심재정	유연우	이승로	장대준	정영호	조환익	최은미	황광식
고영곤	김동우	김숙자	김인섭	김태희	노유리아	박병화	박진경	서희례	심현숙	윤광종	이승민	장대홍	정용준	주도운	최은지	황보연
고일현	김동채	김순의	김인숙	김하늘	노인호	박복재	박찬숙	서희승	아이쿱여수ymca생협	윤상묵	이신임	장덕수	정용헌	주영진	최은희	황봉광
고효주	김동하	김승원	김일주	김학중	노평우	박상규	박창서	선준규	안교주	윤선미	이연주	장두익	정은숙	주원석	최재인	황상규
고희경	김동현	김승호	김재건	김학태	류재형	박상준	박철훈	선준규	안상희	윤운길	이오성	장미영	정재종	주은옥	최종기	황성춘
공영삼	김두희	김연자	김정선	김한주	류중구	박상춘	박철훈	설동재	안성희	윤재삼	이용길	장병기	정찬순	주인택	최준수	황요순
곽영리	김래봉	김연주	김정순	김행숙	류한주	박상표	박춘걸	성해석	안정숙	윤창한	이원교	장선심	정채삼	주재연	최준수	황은하
곽영송	김만수	김영대	김정원	김현석	명영숙	박서아	박현욱	성혜란	양광섭	윤철중	이인옥	장선영	정채영	주정미	최준호	황종현
곽은숙	김명근	김영란	김정윤	김현수	문동석	박서영	박형곤	성희영	양미경	윤철호	이재철	장옥숙	정채훈	주진희	최진우	황치호
구동현	김명선	김영문	김정일	김현수	문병기	박성환	박형규	손옥균,곽시영	양세열	윤형혁	이정석	장웅선	정태균	주철현	최철호	황현수
구제혁	김명진	김영숙	김종산	김현주	문복지	박소운애	박형길	손우정	양세혁	이강진	이정연	장은종	정태주	주철희	추인준	황형규
권은진	김미리	김영완	김종석	김형균	문승하	박수성	박형채	솔샘교회	양재원	이건영	이정주	장종익	정형봉	주현정	추인준	
권인홍	김미애	김영진	김종수	김형률	문연희	박수진	박효준	송광호	양정인	이경임	이정철	장철호,박영미	정형식	진광화	하나미	
권일녕	김미연	김영철	김종철	김형애	문영홍	박신숙	방경신	송숙영	양준석	이광민	이정훈	전선숙	정형자	진달래	하두종	

회원소식

평생회원 : 강병석 김동오 문갑태 문이호 성갑열 신현일 이완 최동현 조현서 조환익 최병수
- 1월 14일 : 정동훈 님이 김정일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 1월 16일 : 김지나 님이 정비취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 새로 가입해주신 회원님, 생명을 지키는 천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하고 싶고 알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시죠?
막걸리 한 잔하며 수다 떨어보면 어때요?
정회선 의장님과의 막걸리 수다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셋째주 목요일(2월 20일) 8시 부터구요.
함께하고 싶은 분은 **김연주 회원에게**
2월 17일 까지 꼭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010-4559-7904 (2시 이후에 연락주세요)

1월 재정보고

(단위 : 원)

수입			지출		
회비	일반회비	7,944,000	일반관리비	활동비	4,320,000
	단체회비	–		상여금	2,160,000
				복리후생비	450,000
				4대보험료	340,690
				퇴직충당금	300,000
	소계	7,944,000		소계	7,570,690
후원금	해피빈모금	–	사무/운영비	사무용품비	38,100
	후원금	1,100,000		회의경조비	50,000
	특별후원금	3,150,000		통신우편비	67,780
				자료비품비	400,000
				차량운영비	248,400
				공과금	115,030
				임대료	–
				각종수수료	4,500
	소계	4,250,000		소계	923,810
사업수입	재정사업수입	–	사업비	회원사업비	3,166,500
	프로그램수입	160,000		환경교육사업비	73,400
	협력사업수입	–		해양환경사업비	–
				산단기후변화사업비	–
				푸른길사업비	–
				재정사업비	–
				현안사업비	39,280
				연대사업비	505,500
				기타사업비	–
	소계	160,000		소계	3,784,680
잡수입	잡수익	4,035	잡지출	잡지출	250,000
	소계	4,035		소계	250,000
당월수입계		12,358,035	당월지출계		12,529,180
전월이월금		311,132	잔액		139,987

- 환경운동연합에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장잔액 부족 등으로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시 다음 달에 자동합산출금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여수환경운동연합) 614-01-035371

논 평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논평

GS칼텍스의 허위신고와 사고대비 부재, 해경 등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확산시키고, 해수부장관의 대기업 두둔하기가 정확한 조사와 책임을 물타기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발생 후 지속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방제활동 등 관계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 지금 해경은 해상방제가 사실상 완료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수환경운동연합이 매일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오염은 확산되고 있고 유출량 또한, 사고당일인 1월 31일 GS칼텍스의 발표(800L)와, 2월 3일 해경의 중간 수사발표(164.000L), 2월 5일 민주당 김영록의원의 발표(642,000L) 등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양오염을 사전에 막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 'GS가 1차 피해자'라는 따위의 말을 늘어놓으며 노골적으로 대기업 두둔하기에 나서는 한심한 상황이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방제활동 등 관계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한다.

1. 유출량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가? GS칼텍스의 반복되는 거짓말

- 2014년 1월 31일 GS칼텍스 800L(4드럼) 추정
- 2014년 2월 3일 해경 중간 수사발표 164,000L 추정
- 2014년 2월 5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 642,000L 추정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출량에 여수시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유출량 산출은 방제작업, 피해보상과 환경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의 축소에만 급급하여 초동방제에 실패를 불러일으키고 피해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 GS칼텍스의 태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기름유출량은 GS측의 사고직전 기름보유기록과 사고 이후 기름보유기록의 차이가 될 것이다. 해경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1995년 여수에서 발생했던 GS칼텍스(당시 LG정유)의 씨프린스호 사고의 유출량이 초기 700톤이라던 것이 7배 이상인 5,035톤으로 늘어났고, 역시 여수에서 발생한 호남사파이어호 사고의 유출량이 초기 80톤이라던 것이 17배가 넘는 1,402톤으로 늘어났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20년 전의 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한심한 상황이다.

2. 사고 유조선과 하역시설 모두 GS칼텍스 관련시설이고 유출된 기름역시 GS칼텍스 것이다. 그런데 GS가 피해자다?

도선사의 과실이라는 해양경찰의 중간 수사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다. 해경의 수사발표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과거 호남사파이어호 사고 등 유사한 사고의 경험이 있고,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부두시설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안전대책과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GS칼텍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한다.
또한 신고를 지연하고 사고의 내용을 축소하여 신속하게 진행되고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할 방제활동을 방해한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
부두와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송유관에 대한 관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 유조선이 정박하여 하역준비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송유관의 밸브들은 열려있었고, 평상시 비어있어야 할 송유관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스스로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원이 끊겨 조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GS칼텍스가 주문한 기름을 싣고 온 유조선이 GS칼텍스의 시설과 충돌하여 GS칼텍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GS칼텍스는 회사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이번사고의 전체적인 과정을 짚어볼 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정확한 유출량도 모르고 오염은 계속 확산되는데 방제가 끝나간다는 해경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경은 2월 2일 정확한 유출량도 모르면서 1일까지 진행된 방제활동으로 70% 정도의 방제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일 오염지역은 소치마을, 모사금해수욕장으로 넓어졌다.
해경은 2월 4일 1~2일정도면 해상방제가 마무리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오염지역은 만성리해수욕장, 가막만의 대경도, 경남 하동과 남해 등으로 확대되었다.
해상에는 기름이 없다는데 해안으로는 계속 기름이 밀려들고 있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 할 수 있는가.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방제활동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신덕마을 해안에만 집중된 우왕좌왕 육상방제

오염된 해안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방제인력이 신덕마을에만 집중되어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육상방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수시의 지휘체계 또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지역 대부분의 해안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갯닦기 작업으로는 방제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암반지대에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전문방제회사의 참여가 시급하다.
오염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방제방법과 방제회사, 방제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기름을 흡착하고 있는 고농도 조간대(표층 자갈, 모래 등)는 굴착 제거 및 정화작업이 시급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조하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서식 생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확하다.

2014년 2월 6일
여수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흥순(010-3244-0288)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010-3458-7488)

여수환경연합 총회 결과 안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1월 11일(토) 노인복지회관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67명의 회원이 참가(성원 59)하여 임원 및 사업, 예산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3감사보고 : 원안대로 통과
2013사업평가 : 원안대로 통과
2013결산(안)원안대로 통과
2014조직구성(안) : 원안대로 통과
2014활동계획(안) : 사업목표 2-4에 화양농공단지 특별위원회 개설을 집행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
2014예산계획(안) : 원안대로 통과

2013년 우수회원으로는 김정일 회원이, 우수 위원회는 해양환경위원회가 수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위원회 : 박근호 조천래 전치수 김영철 황요순 이창록 유창호 박국제)

10년 회원상은 강관종 강성군 강용수 고성환 곽영리 김대천 김명진 김병철 김성곤 김연자 김우인 김일주 김점유 김종수 김철인 김학중 김해성 김회종 박경근 박병재 박정임 박정철 박춘걸 손옥균 심재관 오철곤 이강재 이강진 이수헌 이종민 임치택 장덕수 장미영 전태식 정회선 조윤옥 주원석 진광화 진성문 한강석 황광식 황보연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분들 : 전국환경연합 이수헌 문이호 이득섭 나승철 고일현 김종석 이종균 전치수 박경호 이문식 송지훈 강흥순, 김혜진 정흥배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당선인 공고

(임기 : 2014-2015년)

여수환경운동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정기총회(2014. 1. 11)에서 선출된 임기 2년(2014-2015년)의 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2014년1월13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총회 모습들

회원님들의 많은 호응과 참석이 있었기에 빛날 수 있었던 총회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모두 2014년도 매일 매일 좋은 날 되자구요^^*

2014년도 파이팅!

총회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

꼬막을 삶는 아름다운 부부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빙고게임이지요!

전치수 집행위원님이 후원해주신 싱싱한 해산물들, 빙고게임 상품이었던 하수오 담금주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20년전 우리지역에 기름유출 사고로 악몽을 겪었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하는것은 왜일까?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 애기세줄나비 애벌레

가장 먼저 봄을 준비하는 애기세줄나비 애벌레
줄나비 11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일작은데, 가장 먼저(3~4월경)에 나비의
모습으로 만날수 있는 친구 입니다.
바로 **[애기세줄나비]** 이죠!
이 작은 녀석이 가장 먼저 숲을 날기 위해 지난 가을
먹고, 먹고, 또 먹어 줄나비들 중에서 가장 큰 애벌레
모습으로 겨울 지냅니다.

그리고 봄의 기운을 느끼면
바로 번데기 만들 준비를 하지요!
이상하리 만큼 봄처럼 포근한 설 명절에
원하지 않는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설 연휴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수환경연합 회원여러분들께!!

안식인사를 드립니다. 회원여러분!!
저는 여수환경연합 문갑태 국장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13년간 활동을 하고 조직의 배려로 2월 1일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안식에 들어갑니다.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과 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이 있어 활동을 쉬는 것이 마음에 편하지 않지만, 13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환경연합은 저에게는 젊음이었으면 행복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항상 보듬어 준 환경연합의 여러 선후배들과 회원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서 멋진 환경연합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안식기간에 시민사회와 환경연합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환경을 이야기하고, 환경정책을 생산하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길에 회원님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드립니다.

하늘아래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길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커지는 길이었으면 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여수환경연합의 건승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다시한번 안식기간을 허락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와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국장 드림

시선집중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유류 오염 사고〉

당일부터 현재(2014/02/05)까지

▶일시 및 장소 : 2014. 1.31. 9:35경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
▶선박 : Wu Yi San(싱가포르 국적, 원유운반선, 164,169톤, 원유 278,584톤 적재
승선원 25명(선장 등 한국인 3명, 외국인 22명)
도선사 2명 승선
▶상황 : GS원유2부두 시설 및 송유관 3개(원유, 납사, 유성혼합물) 파손
우이산호 선수 우현 수면 하 일부 파공
▶해양오염피해 : 원유 등 약 ??????? ℓ 유출
▶사건개요 : 2013년 12월 9일 영국에서 출항하여 2014년 1월 31일 9시 35분경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중이던 싱가포르 국정 원유운반선 우이산호 선수부분이 부두 및 송유관 잔교와 충돌하여 송유관이 파손 원유가 해상에 유출된 사건

1/31(금) : 사고소식을 듣고 오후 2시경 GS원유2부두에 도착했다. 집 앞에서부터 맡았던 냄새가 산단에 가까워지니 더 심해졌다. 차에서 내리니 코를 찌르는 악취가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소속을 밝히고 사고현장을 보니 부두와 돌핀(계선주(繫船柱)(배를 매어 두기 위하여 계선안(繫船岸), 부두, 잔교(棧橋) 따위에 세워 놓은 기둥)사이의 다리는 V자 모양으로 구겨져 있었다. 또한 GS원유1부두와 2부두를 가로지르는 사람이 지나는 통로(Walk way)는 파손되어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부두 밑에서 방제작업이 한창이었고 GS관계자, 시 관계자, 소방대원, 해양경찰 등 여러 인사들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신덕으로 향했다. 사실 4드럼(800 ℓ)이 유출되었다는 보고에 차로 이동하면서 위에서만 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그 때 당시의 심한 냄새로 미루어봐서 양이 GS가 발표한 자료보다 많을 것이고 심각할 것이라는 의문에 근처 마을을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신덕으로 가보니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50명은 족히 되어 보였다. 흡착포를 바다에 던지는 사람, 기름먹은 흡착포를 집어 올리는 사람 등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 속에 4드럼이 유출되었다는 말이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만성리, 오천동을 가보았는데 내 눈으론 기름띠를 확인할 수 없어서 4시가 조금 넘어서 돌아갔다.

2/1(토) : 오전 10시 GS원유2부두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한양소유부지 앞 테트라포드, 신덕마을, 소치마을, 오천동 모사금, 만성리를 확인하였다. 한양소유부지 앞 테트라포드에 기름이 묻어 있고 아주 심한 것은 아니지만 기름띠가 확인되고 바다에는 유막이 형성되어 있었다. 신덕의 상황은 심각했는데 해수부장관이 온다고 상황실은 우왕좌왕한 모습이었고 오른편 하천쪽은 방제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소치마을도 기름이 해안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해상에서 최대한 제거를 하여 해안으로 밀리지 않게 해야 했지만 주민들만 삼삼오오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모사금도 바다에 흡착포만 몇 개 던져놓고 거의 대처를 안 하고 있었다. 만성리는 다른 방파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막이라고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기름이 보이지 않았다. 현장을 돌아보니 사고가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환경운동연합집행위와 연대회의에 현장조사를 제안했다.

2/2(일) : 오전 10시 사무실에 모여서 어제 본 상황을 설명하고 출발하여 10시 30분에 GS원유2부두 현장에 도착해서 GS측의 설명을 들었다. 그곳에서 간교에서 돌핀쪽의 중간부분은 파이프가 위로 솟아 있기 때문에 유류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신덕의 상황을 봤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대책위 구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2/3(월) : 오전 10시 해경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원유 66t, 납사 70t, 유기화합물 28t이 유출되었다. 원유보다 더 많은 납사(나프타)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1월 31일 코를 찌르는 화학물질 냄새가 나프타였다는 말이다. 나프타는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로서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 현재까지 추정치가 70t이라니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박이 부두를 들이받으면서 밸브의 자동시스템도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밸브는 도대체 몇 시에 잠겼으며 얼마나 많은 원유와 납사, 유성혼합물이 바다로 들어갔을까? 자원봉사자들의 모습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도 보였다.

2/4(화) : 아침 9시 20분 사무실을 출발하여 35분 만성리에 도착했다. 만성리, 신덕, 소치, 오천동까지 둘러보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정리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또 다시 사고현장으로 갔다. 유출된 GS유류는 여러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원료이며 더 점성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들물 때 떠 있다가 썰물 때 찌꺼기가 바위틈이나 모래틈으로 들어가서 사진과 같이 마치 위에서 뿌린 듯 한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돌에 끼인 원유는 더 닦기가 힘들 뿐더러 날씨가 따뜻해지면 얼음이 녹는 것처럼 퍼지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닦는 것보다는 세척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배를 타고 사고현장인 GS원유부두 주위를 조사했는데 교각에 끼인 기름이 60센치미터는 족히 되어 보였다. 육지에서 봤을 때 보다 더 완연하게 보이는 충돌현장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해면부에 있는 송유관은 위로 꺾여서 기름이 새지 않았다는 말과는 달리 꺾인 부위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수) : 아침 9시 사무실을 출발하여 1팀은 포스코 앞, 묘도, 신덕, 석유비축기지 앞, 만성리를 2팀은 만성리, 대경도를 조사했다.

↑ 기름이 흠뻑 낀 스티로폼(?)을 해안가에서 끌어 올려 육상으로 이동시켰다.

↑ 오후 4시경 만성리를 가보니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스팀세척기를 설치하고 있었다. 돌을 세척기에 넣어 스팀을 쐬여 유분을 분리시키는 것인데, 돌 들을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신덕에서는 그동안 갯닦기를 할 때 흡착포를 사용했는데 사고 발생 6일째인 오늘부터 신덕에서는 보루를 이용해서 갯닦기를 시작했다.

녹색평론 독자모임

게으를 수 있는 권리 (폴라파르그) – 박기찬 –

어릴적 나는 농경사회가 95%를 이룬 작은 산골마을에서 살았다.

산과 들길을 걸으면서 생각하게 된다.

이 산과 들의 본래 주인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자연상태의 산과 들이 개인의 소유로 전해져왔고, 주인이 없었던 산과 들판이 재산가치로 환산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됐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농경사회가 어떻게 도시로 확장되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이 지점에서 하나하나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땅의 기쁨을 향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쾌활한 게으름의 신을 찬미하기 위해 축제를 벌일 여유가 있었다. 호모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은 사라지고, 호모에코노미쿠스(생산하는 인간)만 남는다. 필요한 노동과 축제 문화속에는 인간 본연의 해방과 일탈로서의 여가되찾기, 진정한 문화즐기기, 상상력되찾기가 가능했다. 지금은 어떤가? 담배를 피우며 태양아래서 한가하게 빈둥대고 있는 행복한 나라를 찾아내 기차선로를 놓고 공장을 세워 그 저주받을 자본주의(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의 노동을 수입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저들의 논리대로 노동과 금욕주의로 세뇌당해 누려야한 자유로움이 과잉노동과 과잉생산으로 자본가들만의 나태함, 강제적인 향유, 비생산, 과소비를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기위해 우리는 게으를 수 있는 권리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제 더 이상 과도한 노동과 열정에 귀중한 생명력을 맡기지 말고 하루 세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낮과 밤 시간은 한가로움과 축제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

'여수는 지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새해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설날에 전해진 사고소식에 가족 어르신들의 덕담이 역겹고 매캐한 기름냄새로 뒤덮였습니다.

800리터 유출이라는 초기 보고 자료와는 다르게 16만 5천에서 60만 리터가 유출됐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만 나오는,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허술한 발표와 대응으로 사고를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 하느라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기름 확산 방제와 유독성 여부에 따른 현장작업자의 건강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유출된 기름의 성분조차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유출범위와 해안가 피해지역 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름제거를 위해 여러 단체에서 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도와주겠노라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관리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상황실은 있으나 총괄책임자는 없다는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기름띠가 먼 바다까지 번지는 최악의 참사는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존기름이나 해안가에 스며든 기름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문적인 방제회사나 장비 인력조차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마을 주민이나 관계회사 사회단체 등의 자원봉사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름을 닦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방제작업으로 2차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말뿐인 홍보에 힘을 쓸게 아니라 일단 기름이라도 다 제거해야 국민들이 다시금 여수의 깨끗한 바다를 믿고 우리지역의 수산물을 찾을 것입니다.

어제 오늘 걱정스런 마음에 바닷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신덕은 물론 만성리 대경도 앞바다까지 기름띠가 많이 보입니다. 물오리는 까만 기름이 묻은 날개로 날아보려 부질없는 날갯짓을 하고 바위틈이나 방파제 깊숙이 들어간 기름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흘러내릴 것입니다. 작은 기름띠 하나라도 찾아내 제거하는데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씨프린스호 사고로 인해 상처 받았던 바다가 이제야 되살아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며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세계 4대 미항이라 외쳤던 여수의 바다는 기름에 젖어 불타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엄청난 재해임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자원봉사자마저도 잠정 중단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20년전 씨프린스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겪었던 그 뼈아픈 악몽을 이제는 다 잊었단 말인가!

박 근 호 (해양환경위원장)